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5차회의

일시:2013년 10월 21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이묘숙·박홍근·조미옥·노미향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지난 9월 추석을 비롯해 F1그랑프리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충장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기자들의 열정을 격려했다.

발로 뛴 기사들 돋보여…지역인구 감소 대책 깊이 고민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직무대행)

추석 특집 가족 이야기 훈훈
산행시리즈 계속 이어지길

이묘숙 (아크갤러리 관장)

쌀개방·택시카드결제 시의적절
개방화장실 문제도 잘 짚어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구연동화 해주는 노년이야기
감동과 정보 함께 준 기사

박홍근 (포유 건축사 사무소 대표)

전일빌딩 보존 앞장에 감사
건축용어 오류 등 주의해야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상임이사)

미담 기사 꾸준한 보도 좋아
상반된 경찰 기사 아쉬움

▲조미옥=지난 10월3일 18면 피플앤라이프에서 소개한 '구연동화 들려주며 보람찬 노년, 보성교육청 프로그램 꼬부랑 동동' 기사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맞벌이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하는 부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근하는 엄마, 아빠들은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육아문제가 커다란 부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치원에서 구연동화를 들려 주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준다는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버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8월26일 12면 문화면 '게임중독,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신이 '위너'입니다'기사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했다. 실제로 게임에 중독됐던 학생들이 난생 처음 스크린에 출연해 본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연기하며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미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원론적인 대책만 논하는 것이 아닌 신세대에 맞는 해법을 찾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졌다.

지난 10월14일 6면 사회면 '학생에 맞은 교사 7명, 광주 교권침해 3년 새 25배 증가'기사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은 기사였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수치상으로 25배나 증가했다는 제목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특히 학생에 맞은 교사 7명. 폭행과 성희롱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 독자에게 교권침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강한 제목이 필요했겠지만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을 좀 더 배려해주기를 바란다.

▲이묘숙=이제 PC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시대를 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단순히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신문이 독자에게 다가설 수 없다. 신문만이 갖고 있는 심층성을 넘어 광주일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인만큼 광주·전남에 소식을 최우선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10일 1면에서 '쌀 수입 전면 개방 뜨거운 감자 부상'기사는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특히 이날 3면에서 '쌀 米친개방 안돼'라는 기발한 제목을 통해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를 잘 보여줬다. 쌀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 수준인 농도 전남에서 쌀 수입 전면개방이 현실화되면 우리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지난 9월30일 1면 '택시카드결제 힘든 국제도시 광주'기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서는 카드택시가 많지만 광주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방이니까 으레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런데 10월8일자 기사를 보니 광주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카드단말기를 100%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지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언론이 먼저 발견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광주일보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9월3일 6면 사회면 '광주시내 개방화장실 963곳 중 100곳 직접 찾아보니' 기사는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고민한 흔적이 잘 드러나 인상적이었다. 광주시는 많은 개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데 불편하고 불결한 화장실은 지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시작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방문할 것인데 그 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기사였다.

▲박홍근=문화전당을 방문할 많은 외국인이 바라볼 건물이 바로 전일빌딩이다. 최근까지 전일빌딩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광주일보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여긴다. 건물을 처음에 얼마나 멋지게 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곳이 호남언론이 시작된 장소인 만큼 신문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광주일보의 의견도 의미 있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광주의 민주화를 지켜본 전일빌딩이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월25일 1면 '호남정치 위축 어쩌나?' 기사는 광주·전남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권자 수도 충청권에 밀리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미 광주·전남의 취학연령 아동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고 있다. 인구수에 따라 정치적인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일보가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유동인구부터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혜안을 기대해본다.

지난 9월2일 7면 사회면 '광주 불법증·개축 원룸 무더기 고발 파문' 기사는 늘어나는 원룸에 대한 불법논란을 지적했다. 그런데 일부 건축용어와 관련 규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건축이나 의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용어들은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독자들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미향=최근 피플앤라이프 지면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담이나 선행 소식을 꾸준히 만날 수 있었다. 다른 신문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신선하고 따뜻한 소식을 광주일보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바란다.

'경찰이 이래도 되나 향응, 금품수수, 근무 중 도박까지', '시민 눈높이 맞춰 확~달라진 경찰' 이는 지난 10월7일자 사회면 기사와 10월10일자 사회면 기사 제목들이다. 첫 번째 기사는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인데 불과 3일 후 전혀 다른 성격의 기사가 나갔다. 며칠 사이에 경찰이 크게 달라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경찰의 변화와 기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언론의 질타를 받고 변화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보여주려 한 것 같지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김윤하=지난 9월17일 추석 특집판을 보면 다른 신문들과 달리 광주일보만 28면으로 제작됐다. '사랑과 소통의 출발점, 가족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가족을 소개해 추석에 어울리는 지면이었다. 특히 11면부터 이어진 '한가위문화 나들이' 기사는 추석에 유익한 정보로 가득했다. '가족'이란 주제로 이뤄진 추석 특집면을 보면서 오랜 시간 많은 기자들의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명절에 맞는 가슴 따뜻한 기사와 함께 '내년지방선거 누가 뛰나'시리즈는 연휴에 빠질 수 없는 화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민들에게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고, 판세는 어떠한지 등 독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보여줬다.

지난 10월2일 2면 '전국 첫 스마트진료 전남대병원 모바일서비스 이용해보니' 기사는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알토란 같은 기사였다. 스마트진료 모바일서비스는 전남대병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서 모르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점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보여줬다.

최근 문화면 등에서 새로운 편집을 시도하며 딱딱하지 않은 부드럽고 읽기 편한 신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다른 사진들이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9일 1면 '한 달 남은 수능, 어머니의 기원'이란 제목의 사진은 마치 작품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실루엣만으로도 수능시험이 한 달 남은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6일로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등반'기획물이 끝났다. 독자들에게 엄홍길 대장과의 산행과 함께 명산에 대한 자세한 산행정보를 제공해 매번 기다려지는 지면이었다. 앞으로도 이를 잇는 산행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리=양세열기자 hot@·사진=김진수기자 jeans@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진시황칠봉선본점
남구 봉선동 롯데수퍼옆 무등2차@맞은편
황칠삼겹살,황칠돼지갈비,황칠목살,황칠주물럭
황칠골뱅이초무침,황칠들깨무침,황칠게살비빔밥
단체예약환영, 체인점 모집중
☎(062)654-0173

영마트
북구 두암동 기산로얄타운1층
제주도 직송 감귤(한라봉)
1t차량(소유자)으로
판매하실분 / 월수입500만원보장
☎(010)9996-9480

선재영술원
서석동 남동천주교정문건너편 신양촌2층
사주, 관상, 운명, 궁합, 성명학, 택일
승진운, 이사운, 묘지상담
대표 천명남
☎(062)225-4125

두암사우나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뒤 온리원옆
최신시설완비로 신규오픈
쾌적한 환경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대표 이춘봉
☎(062)261-5777

막둥이해물나라
진월동 411-1번지 대성여고아래
해물찜, 해물찜통 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최유숙
☎(062)651-9268

광남공인중개사
유동 15-14번지 2층 유동로타리
광주전지역 부동산
분야별 매수.매매 전문취급 전문 및 상담
대표 최승권
☎(010)2363-6996

The좋은집
오치동 924-20번지
욕실인테리어,누수탐사
설비,판넬,샷시전문
대표 박영권
☎(010)2607-6949

삼보컴퓨터첨단점
월계동 835-1번지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자연산건강원
오치동 924-20 오치사거리에서 31사단가는길
민들레,포도즙,호박
가시오가피 전문
☎(062)261-6949

HD코리아(주)소니센터광주점
북구 임동 상무대로 1273 임동오거리
Sony 광주 판매 전시장
☎(062)522-2000

우리옷빛고을
궁동 62-3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벽면
우리옷 한복 전문점
☎(062)227-6730

한우짝갈비전문점(첨단점)
광산구 쌍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옆
한우참숯구이전문
갈비살, 꽃등심, 안창살
최선의서비스
☎(062)971-5666

365부동산
백운동 453 백운휴먼시아 3단지입구 제일@후문
365일 신뢰와 책임중개로 임하겠습니다
☎(011)617-2296

현대헬스크럽
백운동 현대@먹자골목 이바돔감자탕3층
365일 연중무휴,관장직접지도,샤워시설완비
사물함무료지급/전회원1 : 1맞춤지도
6개월10만원
☎(062)652-5283

진도맛집
광산구 월계동 817-5번지 LC타워
바지락회무침, 우렁회무침
점심 : 애호박찌개, 우렁쌈밥
대표 고광숙
☎(062)971-4488

프렌치스토리
백운동 586-21번지 석산고앞 구)파출소자리
돈까스와 치킨이 맛있는집
☎(062)471-8253

제이당구장
북구 우산동 606-5 현대@에서
우체국앞 한남마트2층
국제식 대대보유
☎(010)3644-7923

바위섬횟집
쌍촌동 1346 호반3차@정문건너 먹자골목
각종회전문 사계절 메뉴등
☎(062)372-4224

세정헤어
남구 방림동 방림교회3거리
남·여컷트,고데,드라이,펌,컬러링,
매직,볼륨매직, 디지털펌
오전9시~오후4시까지영업, 일요일휴무
☎(062)232-7003

새벽바다회타운
두암동 두암타운사거리 롯데수퍼건너편
산지직송,자연산활어 취급전문점
점심특선 : 갈치정식구이,조림,생선초밥,회덮밥
매운탕(지리)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63-1571

금탑소머리국밥(예술의거리점)
대의동 31-1번지 금남지구대 파출소옆
소머리국밥, 소양국밥, 콩나물국밥, 해물국밥
대표 정은숙
☎(062)673-7971

백조부동산컨설팅
용봉동 20-20번지 하이시네마로타리
토지 전문부동산, 경매,공매 상담전문
대표 이병석
☎(011)3618-4242

강남아카데미학원
남구 방림1동사무소입구사거리
초.중학교 영어,수학 수강생 수시모집
눈높이에 맞는 1 : 1맞춤수업
100%성적향상,학원차량운행
☎(062)676-0501

삼각그린이발관
삼각동 그린타운@상가 108호
염색 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4

가디언엔젤스
학동 628-1번지 휴먼시아1차입구
병원동행서비스, 등·하교 / 등학원 서비스
아이 / 노인 돌봄서비스
☎(062)222-0882

금산인삼홍삼
광산구 월계동 763-5번지
금산에서 직접생산 순수홍삼 100%추출
홍삼액 50포 ⇒ 68,000원
☎(062)973-4934